천주의 모친이시며 우 리의 어머니이신 마리 아

이글에서 오푸시 데이 단장은 천사와 성인보다 더 높으신 성 모님은 평범한 삶을 사셨다 라 고 쓴다 (출처 : Itinerarios de vida cristiana, Javier Echevarría, Planeta, 2001, 4 장) 성모님의 생애는 위대한 성덕은 눈에 띠는 굉장한 행동들을 요구하지는 않 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 다고 호세마리아 성인은 글에서 말하 고 있습니다. 오히려 "일상 속의 감추 어지고 침묵 가운데 이루어지는 희생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... 하느님처 럼 되기 위해서는, 다시 말해서 거룩 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평범한 남녀라 는 우리 인간 조건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아들이고 겉보기에 하찮은 것을 성 화시키면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성모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. 은총이 충 만하시고, 하느님 기쁨의 대상이시며,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평범한 생활을 하셨습 니다."

우리는 여기에서 성모님의 지상에서 의 실존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게 되며 따라서 그분의 삶이 제시하는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라는 부르심의 한 특징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이는 우리가 나자렛 성가정을 방문함으로 써 발견하게 되는 경이롭고도 단순한 진리들 중의 하나입니다. 하느님께 봉사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에서, 날마 다 행하는 일과 직업적인 일 속에서 창조주요, 구세주이시며, 성령이신 분 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성모님의 삶 은 우리에게 자신의 일상적인 일들에 완전히 몰입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세상 한 가운데서 일상적 인 활동을 하면서 하느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유지하면서 관상적인 삶을 사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

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 활동을 하느님께 맞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이상이 너무나 커 보 여서 우리를 압도할라치면, 성모님의 충실한 응답을 묵상함으로써 앞으로

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성모 님께서는 천상에서 당신 아드님과 함 께 다스리시며 당신의 모성적인 자애 와 보살핌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는 그분의 모범뿐만 아니라 그분의 끊임없는 도우심도 놓여 있다 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 니다. 우리가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 하자마자, 아니 그렇게 하기 전에라 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 다. 비록 그분의 효과적이고도 사랑 에 넘치는 보호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말입니 다.

또한 우리는 우리 성모님이 걸어가신 길이 당신 아드님처럼 십자가의 길이 었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해야 하겠습 니다.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 가 성모님 쪽을 향하여 그분을 따라 가게 될 때, 우리는 성모님처럼 우리 가 우리 자신을 잊고 온전히 예수님 의 구원의 사랑에 우리를 내맡길 때에 우리 영혼에서 넘쳐 나오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갈바리아의 당신 아드님 곁에서 가능한 한 온전한 정도까지 행사된 성모님의 모성은 당신을 우리의 어머니로서 받아들이면서 당신을 따르고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온전히 바치는 행위 속에 우리도 동참하라는 강하면서도 온유한 초대인 것입니다....

우리는 타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날마 다 노력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풍요로 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. 작게는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업적 환경 그리 고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우에라도 타인들에게 봉사하는 기 회를 찾거나, 우리 일상적인 일들 속 에서 발견되어 즐겨 실천하는 보속과 희생을 통해서 말입니다. 우리는 또 한 그러한 보화를 우리의 극기, 거룩 한 순결에 대한 사랑, 모든 이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나약한 이들의

고통과 요구에 대한 우리의 연대를 기쁘게 증언함을 통해서 발견하며, 온갖 죄의 기회를 피하고, 유혹을 피 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즉시 하느님 께로 돌아옴으로써 십자가의 풍요로 운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. 요한 바 오로 2세께서는 성모님께서 우리에 게 빛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아버 지의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,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 닫는 기쁨으로 결국 인도하게 되는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ceonjuyi-mocinisimyeo-uriyi-eomeoniisinmaria/ (2025-11-21)